

접속재용 EPDM Rubber의 내열성능

이철호* · 김상욱

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· *평일산업(주) 기술연구소

유기재료의 열적노화는 다음과 같은 반응속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.

$$\frac{dR}{dt} = A \exp(-E/kT) \quad (1)$$

여기서 dR/dt : 시간이 경과에 따른 특성의 감소, A : 상수, k : 기체상수, T : 절대온도, 그리고 E : 열화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이다.

적분하고 log를 취하면

$$\ln t = (E/k) 1/T + B \quad (2)$$

$\ln t$ 를 X축, $1/T$ 을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E/k 인 직선이 되고, 이것은 Arrhenius plot으로 잘 알려져 있다.

절연재료의 열화 예측에 있어서 단기간의 수명 즉, end-point를 결정하는 시험 항목에는 IEC 216에 절연파괴강도 50%, 신장을 50%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무절연재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장을 처음 값의 50%가 되는 점을 end-point로 설정하였다.

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(EPDM) rubber는 분자구조내에 불포화도가 적음으로 내후성, 내오존성, 내열성 등이 뛰어나고 절연성능이 우수하여 케이블의 절연체, 케이블 접속재 등 전기절연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케이블 접속재로 사용되는 EPDM rubber의 열화특성을 예측하고 40년 이상의 사용연한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화방지제가 각각 다르게 처방된 4가지 시료를 제작하고 Arrhenius식을 사용하여 장기신뢰성을 검토하였다. 사용된 산화방지제는 1,2-dihydro-2,2,4-trimethylquinoline과 zinc-2-mercaptotoluimidazole 및 zinc-methylmercaptobenzimidazole이었다.